홍대선원 3천배 클럽 회향…“2025년도 정진”

1월 1일, 경내 법당서 회향식
회향 기념 당일 3000배 정진
6만여 배 수행한 불자 ‘눈길’

2023년 12월 시작된 절수행
1년간 120여 절 도반 동참
“무한한 ‘마음의 힘’ 회복해”


서울 홍대선원은 1월 1일 경내 법당에서 ‘저스트비 3000배 클럽’ 1주년 회향식을 봉행하고 회향 기념 일일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1년간의 3000배 수행으로 ‘나’를 내려놓고 무한한 마음의 힘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2025년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날, 차디찬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홍대선원 법당은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후끈 달아올랐다. 1년간 이어져온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이 회향일을 맞아 ‘일일 3000배 정진’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20여 명의 동참 대중들은 터질 것 같은 허벅지, 휘청거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좌복에 연신 땀에 젖은 몸을 던졌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월 1일 경내 법당에서 ‘저스트비 3000배 클럽’ 1주년 회향식을 봉행하고 회향 기념 일일 3000배 정진을 진행했다.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은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송산하 스태프의 합작 프로젝트로, 2023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다. 매달 스스로 3000배 수행을 약속하고 지켜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마음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국적·종교·연령을 초월한 120여 명의 ‘절 수행 도반’들이 1년간 3000배 클럽에 참여했다.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3000배 클럽을 개편한 ‘다함께 300배’ 프로그램을 진행, 절 수행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회향사에서 “그동안 여러분은 두 다리를 잃을 각오로 ‘3000배’라는 약속을 지켜왔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스스로를 믿게 되면 마음의 힘이 저절로 커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025년 새해, 그 힘을 바탕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해, 총 6만여 배를 성만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꾸준한 수행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절 수행을 시작한 김인수(58) 불자는 “절을 할 때마다 화내고 속상한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잔잔한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여법한 시간이었다”며 “새해에도 나를 돌아보는 3000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원래 하루 200배씩 했다면 올해는 하루 300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저스트비 3000배 클럽은 새해부터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편, 절 수행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산하 스태프(28)는 “3000배 클럽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 횟수는 중요치 않다”며 “새해에는 매주 월요일 ‘300배 클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절 수행을 하게끔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마다 ‘일일 3000배 정진의 날’을 만들어 3000배 클럽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은 3000배 클럽을 회향한 사부대중을 위해 새해 떡국을 공양하기도 했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 49재…“대종사 유훈 계승”

12월 26일, 불국사 무설전서
사부대중 1000여 명 운집·추모
생전 법문 엮은 법어집 봉정


대궁당 종상 대종사 49재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종단 발전, 불교 언론 부흥, 지역 포교, 나눔과 봉사 전법 등 분야를 넘나들며 한국불교 중흥에 매진한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49재가 지난해 12월 26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해 종상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49재는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됐다. 이어 종상 대종사의 영단에 선원장 종우 스님이 헌향하고 대중들이 헌화하며 대종사의 사바세계에서의 마지막을 추모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행장 소개로 종상 대종사의 불사 원력이 서린 삶을 기렸다.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종상 대종사는 인연법에 따라 이 사바세계에 도달해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에서 불교의 자긍심을 지켰고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할 일을 빠짐없이 해나가셨다”면서 “이제 종상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9일째로 연화장 세계에서 충분히 안락하셨을테니 이제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불국토를 지켜달라”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상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를 올린 뒤 추모사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북쪽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부대중을 위해 천 가지, 만 가지 말씀으로 남쪽을 가리키던 종상 대종사의 자비하신 언어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지남(指南)으로 남았다”면서 “열반 이후에도 언설이 아닌 묵언으로 전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전해주실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종상 대종사는 은사스님에게 지극했던 제자이자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엄격했으며, 대중들에게는 자애로운 스승이셨다”며 “이제 남은 대중들이 대종사가 이끌던 불국사를 지켜야 하지만,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어간다면 불국사는 언제까지나 중생들의 의지처이자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상 대종사 문도를 대표해 의왕 청계사 주지이자 종회의원 성행 스님은 49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행 스님은 “잘 모시지 못한 불효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다”면서 “한 생을 머무셨던 자리에는 고요와 적막만이 가득하지만, 스스로 몸을 낮춰 중생과 더불어 사신 뜻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 우리 문도들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종상 대종사가 생전에 쓴 원고와 법어를 엮은 법어집 〈무공저〉 봉정식도 이어졌다. 경주=김가령 기자

국보부터 명승까지 불교유산 지정 잇달아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예고
유가사 괘불도 등 2점 보물
강진 백련사 일원 명승 지정


국보로 승격 예고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불교문화유산이 국보와 보물, 명승으로 잇따라 지정 예고되면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져 탁월한 조형미를 간직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국보로 승격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곡성 태안사에 위치한 보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동리산문(桐裏山門,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을 세운 적인 선사 혜철(慧徹, 785~861) 스님의 부도다.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전형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돼 있다. 특히 비문에 시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 역할을 한다. 국가유산청은 “기단 주변에 남아 있는 4개의 주초석은 신라시대에 건립된 승탑 중 유일하게 예불 행위를 위한 탑전(塔殿, 탑을 외부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불을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을 갖추었던 흔적으로 추정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12월 31일에는 1993년 도난됐다 2020년 환수한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와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다.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불화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돼 이 불화를 그린 스님들은 알 수 없다. 다만 상호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을 살펴보면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 화파와 관련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띤다.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특히 이 시기의 괘불이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폭 약 4.5m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은 당나라 징관(澄觀, 738~839) 스님이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에 대해 송나라 정원(淨源, 1011~1088) 스님이 상세하게 해설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 전체 120권 중 권 11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각 국사 의천이 고려로 귀국할 때 송의 정원이 한 질을 선물로 주었고, 이에 의천이 항주의 각수인 엄명 등에게 판각을 부탁해 1087년(고려 선종 4) 3월에 송의 상인 서전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고려로 전해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경판을 가지고 책을 찍었으나 일본이 여러 차례 경판을 요청해옴에 따라 1424년(세종 6)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한 이후로 더 이상 인출본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대각 국사 의천이 완성하고자 했던 대장경의 주석서 집성 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며 “한·중·일 삼국의 불교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1월 1일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다.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